

T V

TV 12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광주출신 천재작곡가 정추 선생의 일대기

다큐 '미행(未行), 망명자...' 오늘 밤 9시50분 EBS 방영

광주 출신 천재작곡가로 알려진 정 추(85·사진)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미행(未行), 망명자 정추'가 12일 오후 9시50분 EBS에서 방영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올해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 지원해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카자흐스탄 등 해외 현지 촬영을 통해 만들어졌다.

광주 남구 양림동 출신인 정 추 선생은 1946년 일본에서 수학 중 월북한 뒤 1958년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북한 반체제활동을 하다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돼 카자흐스탄에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차이코프스키의 직계 4대 제자인 그는 지난 1961년 소련의 첫 우주선인 가가린발사를 축하하는 음악을 작곡하는 등 구 소련과



카자흐스탄에서 존경받는 음악가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 추 선생은 망명자의 이름으로 서러운 삶을 살아가며 한민족의 혼을 이국에 심어왔다"며 "이번 다큐멘터를 통해 조국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새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a Go game tournament. Includes a Go board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text describing the event.

이민호, '개인의 취향'으로 컴백

4월 MBC 드라마... 게이로 연기변신

지난해 '꽃보다 남자'로 안방극장을 강타했던 탤런트 이민호가 차기작을 결정하고 1년 만에 컴백한다. 이민호는 4월 첫선을 보이는 MBC TV 미니시리즈 드라마 '개인의 취향'(극본 박해경, 연출 손형석)의 주인공 전진호 역으로 캐스팅됐다.



이세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개인의 취향'은 게이 남자친구를 원하는 여자의 집에 룸메이트로 들어가기 위해 졸지에 게이가 되어버린 남자의 이야기다. 게이 남자친구를 한 명쯤 갖고 싶은 현대 여성의 취향을 그리는 드라마로, 이민호는 단 한 번의 거짓말로 인생이 틀어지게 되는 전진호 역을 맡아 색다른 남성 캐릭터를 선보이게 된다.

이민호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고 오랜 시간 고민을 했는데, '개인의 취향' 대본을 접하고는 단번에 출연을 결정했다"며 "오래 기다리게 한 만큼 한층 성숙하고 노력하는 연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 schedule table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Englis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Includes phrases and their translations.